

고물가·전세대란... 정책 실패 질타

이용섭 “고환율 정책에 물가 급등”... 여야 전세난 해법 이견

국회 대정부질문

지난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세난과 물가 급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반면 물가 급등과 전세대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유가 급등과 관련, “정부는 정유업체의 이윤 탄압, 업체는 정부의 세금 부담하며 책임 전가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높은 이윤과 관련,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영입이익을 넘어 초과이익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을 압박한다면 기업은 다른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근본적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물가급등의 원인은 고환율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실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달성해 환호하고 있지만 내수중소기업과 소비자는 원자재와 소비재를 고가로 구입,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참여정부 때 평균 물가 상승은 2.9%였지만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물가는 3.9% 올

랐다. 반면에 일본과 유럽 등은 모두 낮아졌다”며 “서민 물리는 고물가폭탄은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수출 프렌들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대란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놓고는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말까지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연정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문화진 의원은 “DTI 규제를 더욱 완화시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

발유를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이용섭 의원 역시 “DTI 규제완화를 3월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 장관은 경기도 산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7년 서울 회현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작년 11월 5억원의 장하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복지분야

경제성장 기여율이 6년 평균 19.9%로 전 산업 중 최상위권”이라며 복지 분야 투자를 요구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이동통신사 요금인하에 대해 “통신사 요금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종득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으며 윤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활짝 웃는 여야 사령탑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김우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영 원내대표가 논의를 끝내고 밝은 표정으로 자리를 돌아가고 있다. /연행뉴스

순천 야권연대 여부 주내 결정

민주 최고위, 강원·김해 후보 경선키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저녁에 이어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27 재보궐선거 가운데 강원도지사와 경남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통한 야권연대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강원과 김해의 경우 추가 외부영입 없이 현재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경선 룰에 대해선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김해의 경우 국민참여당과의 추가 단일화 문

제 때문에 강원엔 비해 경선이 다소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순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통한 야권연대는 당내 연합연대의 특위 등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이번 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야권연대와 관련, 민주노동당이 마지 후보를 내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도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전체적인 기류는 이번 주 내에 순천에서의 야권

연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판을 보고 야권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원지사 보궐선거와 경남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이번 주 내에 후보 공모 등 경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서는 지난 25일 출마 선언을 한 최문순 의원과 조일현 전 의원 등이, 김해의 경우 이미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곽영진, 박영진, 김윤현 예비 후보 등이 각각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도권인 성남 분당 을의 경우,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을 아직 차단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문순, 의원직 사퇴... 김학재 승계

민주당 비례대표인 최문순 의원이 지난 28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내달 2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18번이었던 김학재 전 법무부 차관이 최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국회의원 임시국회 회기 중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도록 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엄기영 내일 한나라 입당 기자회견

엄기영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조만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엄 전 사장이 2일 도당 회의실에서 입당 및 출마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한나라당에서는 엄 전 사장이, 민주당에서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의원이 각각 출마, 진검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들은 춘천고등학교 선후배이자 MBC사장직을 거친 인사들 간의 맞대결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상률·에리카 김 돌연 귀국 왜?

檢 수사에 정치권 촉각

한상률 전 국제청장과 에리카 김 등 대형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그 배경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림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인 한 전 청장과 지난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의혹’을 폭로했던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미국에 체류하다 최근 예고없이 귀국,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이들의 돌연한

귀국이 가져올 여파를 가늠하며 검찰 수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치광풍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8일 이들의 입국에 대해 “법대로 처리할 문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야권의 정적화를 경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의 입국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며 ‘기획 입국’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귀국을 종용해도 안 들어오던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씨가 왜 돌

어왔느냐”며 “정권 마무리 작업으로 여차피 터질 것을 막아보려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도 초강도 수사를 해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두 사람의 귀국은 우연의 일치라 아닌 우연의 극치”라며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기식 수사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인 공세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만큼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시 선관위 홈페이지 개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gj.election.go.kr)를 개편하고 ‘바른 선거 사이버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선관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디자인 변경과 함께 장애인 등의 웹 접근 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선거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쿼즈로 알아보는 ‘바른 선거 사이버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해 매일 참여자 중 10명의 정답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rts Hall Hotel & Wedding
관광호텔예술의전당 Business Tourist Hotel

웨딩특전 1급관광호텔
모든객실 천연대리석 마감재 사용으로 최고의 품사실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GRAND OPEN 웨딩특가

1급관광호텔 예술의전당에서 예식진행시 12가지 특별함

1. 광주의 중심 상무지구라는 최고의 입지와 접근성
2. 예식장예식보다 실제 더 많은 하객방문으로 인한 축의금 창출효과
3.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주차환경
4. 1시간 간격의 여유로운 예식시간
5. 2시간 단독 독립연회장 사용
6. 차별화된 호텔식 즉석 뷔페
7. 혼주, 가족 전용 VIP룸 이용
8. 스위트룸 무료제공과 하니문 톨서비스 (고급와인, 과일안주, 축하케이크)
9. 웨딩계약시 추가혜택 (대형예약포함 가족사진촬영권, 꽃장식, 펠퍼비와 페백수모비서비스)
10. 타 예식장 식비대비 2~3천원차이의 합리적 식사비 (3만원-3,4,5,10,11,12월 / 2만8천원-1,2,6,9월 / 2만6천원-7,8월)
11. 이브닝식 빅이벤트(꽃장식, 예도, 현악3중주 서비스)

이브닝 웨딩시 200만원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

- 식사비10%할인 (식사인원 400명 이상시 추가 5%할인혜택)
- 35만원상당의 현악3중주
- 25만원상당의 예도 서비스
- 20만원 상당의 생화꽃장식 서비스
- 40만원 상당의 스위트룸제공과 톨서비스
- 하객 400명이상 보장시 지방 왕복 관광버스 1대 제공

12. 웨딩상당 후 무료시식환영
고품격 100여가지 뷔페음식

1F 아트홀(150석)
5F 펠라지오홀(180석)

객실특전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30가지)
객실료 50% 할인된 7만원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 객실 인터넷가능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펠라지오) | www.hotelarthall.co.kr

古家 고향의 맛- 제1등 고가약오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정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게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